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0)

非人力也

비 인 력 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일을 도모하는 데는 재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 재능을 키우고 난 뒤에 바라던 바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자치통감에는 전한을 멸망시킨 왕망의 신(新)왕조가 15년 만에 망하였을 때, 새로운 황제가 되고자 노력하였던 사람들은 아주 많았는데 그 가운데 외효(魄囂)가 있었다. 당시에 황제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도적집단이 그럴 듯한 명분을 걸어 꼭두각시 황제를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펑림병이 세운 유현(劉玄)과 적미(赤眉) 집단이 세운 유분자(劉盆子)였다. 그뿐이 아니라 왕망 말년의 혼란한 틈을 타고 각지에서 너나없이 재주가 좀 있다는 사람은 군사를 일으켜 독자적이 세력을 만들었는데 이들 가운데 두드러진 사람만 여덟 명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외효(魄囂)는 감숙(甘肅)지역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나 있었다. 그는 왕망의 신(新)왕조 말년에 국사(國士)가 되었다가 자기를 천거한 사람이 몰락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고향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할거(割據)하다가 스스로 서주대장군(西州大將軍)이라고 하면서 세력을 키워서 다른 세력을 제거하고 통일 황제가 되려고 넘보고 있었다. 사실 이때쯤에는 많은 세력도 하나씩 사라지고 이미 황제에 오른 유수(劉秀)와 공손술(公孫述)과 더불어 외효는 천하를 3분하여 하나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으니 꽤 성공한 셈이다.

그러한 그가 어엿한 왕조를 세우고 싶었던지 역사가인 반표(班彪)에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왕조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는지를 물었다. 사실 그는 전국(全國)을 통일하는 황제가 되고 싶었으나 당시 분위기로는 '왕망에게 망한 한(漢)'은 원래 한을 건국하였던 유씨(劉氏)가 부흥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니, 유씨가 아닌 그로서는 불안했을 것이다. 그래서 외효는 유씨가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는 잘못이라는 대답을 반표에게 듣고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쳤다.

외효는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진 말(秦末)에 평민(平民)이면서도 황제가 되었는데, 이로보아 '주인 잃은 사슴을 쫓아가서 먼저 잡은 사람이 장령이라.'는 눈리를 내세웠다. 그러하니 지금 왕망이 망하였으니

주인 잃은 사슴을 먼저 잡으면 그만이 그 것이 유씨(劉氏)와 상관있느냐는 것이었다. 유씨가 아닌 자기도 당당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었다.

사실 이 시기에 외효를 비롯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모두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은 도둑질을 잘 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아니면 자기 동네를 지키겠다고 고향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사세력을 키웠던 간에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게 되었으나 재주로 말한다면 상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있다.

이 말을 듣고 역사가 반표가 동의했을까? '그래 먼저 잡은 놈이 임자이니 빨리 쫓아가서 재주껏 잡도록 해라.'라고 대답해주기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반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역사를 한 측면이나 겉모습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 유방이 왕조를 세우고 황제가 된 데는 재주만을 가지고 사슴을 쫓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가 사슴을 쫓던 모습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를 알아듣게 하려고 반표는 먼저 재주가 출중하였던 사람들을 예로 들었다. 유방 당시를 보면 용기에서는 한신(韓信)과 영포(英布)가 제일이었고 힘이 강하기로는 항량(項梁)이나 항적(項籍)이 제일이었다. 사실 유방은 재능에서는 이들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또 외효가 살던 당시를 보더라도 왕망(王莽)은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만큼의 재능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 재주꾼들은 하나같이 끝내 목을 베이거나 펑(烹)을 당하였다고 일러 주었다.

재주가 있다고 자부하는 외효에게 황제가 되겠다고 하다가 목 베이느니 차라리 살아남을 길을 찾으라는 듯 유방시기의 진영(陳嬰)의 처신을 이야기해 주었다. 진영의 짐은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진영에게 갑자기 왕노릇을 하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갑자기 부귀하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이는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진영에게 왕이 되는 것을 중지시켰던 예를 들었다.

뒤이어 유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유방은 '관대하고 밝으며, 어질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람됨을 볼 줄 알아서 잘 맡겨 부리며, 밥을 먹다가도 먹던 음식을 뱉으면서도 장차방의 계책을 받아들이었다. 밥을 씻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역생(酈生)의

말을 듣고 읊하는 예를 차렸다. 군사들의 대오 속에서 한신(韓信)을 들어냈고 망명한 사람 가운데서 진평(陳平)을 거두어들였다. 영웅들이 그들의 힘을 다 펼치고, 수많은 계책을 다 들어 썼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방은 큰 지략을 가졌고 굴신(屈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에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일세의 재주꾼인 회흡후(淮陰侯) 한신과 유후(留侯) 장량이 유방을 '하늘이 내려 준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한신과 장량이 말한 하늘이 내려 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재주와 노력을 뛰어 넘는 성품이 아닐까? 관대함과 어짊, 아랫사람을 믿고 맡기며 많은 사람들의 재주를 함께 모아서 쓸 줄 아는 능력이었다. 이는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 수양(修養)이고 덕성(德性)이며 천성(天性)이다. 그러나 장량은 이러한 것은 인력(人力)으로 될 것이 아니라 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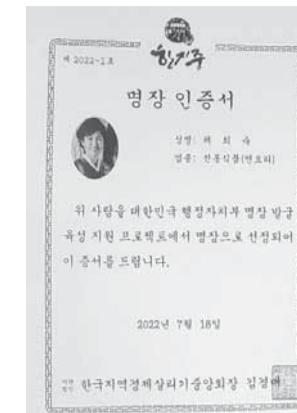
사실 재주만을 가지고 본다면 유방은 황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도 스스로 자신의 재주는 다른 사람만 못하다고 말한 일이 있다.

'무릇 유악(帷幄)에서 주판을 움직이고, 천 리 밖에서 승리를 결판 짓는 것에서는 내가 자방(子房, 장량)만 못하며, 국가를 채우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군량을 공급하고 양도(糧道)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에서는 내가 소하(蕭何)만 못하며, 백만의 무리를 연합하여 싸우면 꼭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는 것에서는 내가 한신(韓信)만 못하다.'라고 한 것이다.

반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주만으로 이를 수 없는 것을 재주조차도 한신이나 영포, 항량이나 항적, 왕망에 비교해 보면 어림없는 인물들이 천자 자리를 암암리에 노리고 있는 것을 한탄하였다. 물론 그 안에는 외효도 포함되었으니 외효에게 헛되이 천자가 되려고 꿈꾸지 말라는 경고였다.

요즈음에도 주인 잃은 사슴을 쫓으려는 듯 어리자리 뛰는 사람들을 본다. 이들은 별 것도 아닌 말재주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길을 잘 아는 법률지식, 그리고 뒤에서 경쟁자를 응해하거나 유창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큰 재주인양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에 바쁘다. 이들에게 목이 베이거나 펑(烹)된다는 반표의 말을 들려주고 싶은 짐이다.

(농)옥소연꽃농원 발족과 명장인증 그리고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참가



옥소연꽃농원의 개원을 준비하는 권동환(건중, 시중공파) 前 대종회 사무총장과 금번 연꽃요리 명장(名匠)으로 승인받은 부인 채희숙 여사의 낭보 그리고 10월에 열리는 제22회 한방바이오 박람회 참가 소식이다.

조선의 백취노인(百趣翁, 豆比明)에 이름 대신 쓴 백 가지 취미를 가진 노인이라는 뜻 玉所 權섭 선생(權燮, 시중공파 28세)이 처음 자리잡은 제천 신동에 (농)옥소연꽃 농원이 설립되었다. 이는 옥소의 6대조 권만형이 시흥 관곡지(錢塘紅 품종)의 연꽃 밭을 장인 강희맹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그의 6세손 권용정(안산군수)이 확대 발전 시켜 오늘에 이르게 되고 이제 또 6세가 지나 옥소가 처음 연꽃밭은 만든 신동 근방에 '옥소연꽃농원'이 조성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옥소는 조선의 4대 문장가이며 다양한 분야에 업적을 남긴 분이며 권문에 있어서 인문학 분야의 거성으로 우뚝선 분이다. 다만 그의 문집이 근래에 발굴되고 연구가 미진하여 그 진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 후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니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어지는 '옥소 기념사업'의 융성한 발전과 아울러 권문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제천 구도심 제천중앙시장 개발로 제천의 랜드마크가 탄생한다면 이는 '옥소타워'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바이오 단지와 골프장,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옥소의 땅'에 한국의 연꽃의 중심지로 우뚝 선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는 후손에 물려줄 자랑스런 유산이 될 것이다. 그 일자 사업이 옥소가 제천 신동에 만든 연꽃밭이 재현되고 그 유업을 계승하여 후손 권동환(CEO)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 사무총장 권오운(겸교공파 35세, CEA), 대종회 사업국장 권오철(부정공파 35세, CMO) 등이 참여한다. 특히 제천에는 권운우 족친이 설립한 세병대(총장 權潤鉉, 錄耕公파 35세)가 있어서 그 위상이 대단하다.

이번 사업개시와 함께 권문의 며느리이자 권동환 대표의 부인인 채희숙 여사가 행정자치부 인정 [명장인증서 제 2022-1호 전통요리(연요리)]를 지난 7월 18일 받은 것은 그 사업의 순리를 반증하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연요리는 연잎밥, 연잎차, 연근가루, 삼겹살구이, 연밥죽, 연근삼계탕, 연오리탕 등 다양하다.

연(蓮)은 잎, 뿌리, 연밥등 전신이 다 요리 및 한약재로 쓰이고 그 효능은 만병통치금이다. 혈관건강·노화예방·빈혈개선·심신안정·이뇨작용·두뇌건강·차매예방·숙취해소·갈증해소 등의 효능이 있는데 추후 사업국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면 족친들에게 배포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2022.10.6.-11)가 제천한방바이오 진흥재단 주최로 충청북도 제천시 한밭엑스포19로에 위치한 행사장에서 열리고 셔틀버스가 제천역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여기에 옥소연꽃(회사)과 티담(TEA潭, 체인점 본부)이 식당과 전시 코너를 운영하고 '연밥' 등 연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니 많은 족친들이 방문과 성원을 바라는 바이다.



권용재 고양시의원, 80억 추경 예산 확보

권용재 초선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자못 기대를 모으게 한다. 권 의원은 지역구인 고봉동 공약이었던 성석·문봉 간 도로 확장공사와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9월 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행부는 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사리현IC 주변(시도 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16억6천만원,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44억2천만원, 사리현IC 주변(시도 82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22억원 등 3개 사업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3개 사업 모두 당초 2023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 통과를 통해서 완공 일자가 몇 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초선의원으로써 총 80억 이상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낸 권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권행완 편집국장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 공실 임대 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원룸 402호	20㎡ (약 6평)
원룸 403호	20㎡ (약 6평)
원룸 404호	20㎡ (약 6평)
원룸 옥탑방	18㎡ (약 5평)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도보 1분)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안동권씨 대종회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9차)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간 엄수)

♣ 일 시 : 2022년 10월 16일(일) 08:00

♣ 장 소 :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 산행지 : 충북 증평 좌구산(버스터미널)

♣ 준비물 : 개인 필요장비

※간식, 음료, 주류, 중식 제공(매운탕, 붕어찜)

● 회 장 권영복 :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2년 10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